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지수는 8월 이후 최고의 주간을 보냈고, 그 안에서 반도체 한 바구니는 이틀에 6,500억 달러를 잃었다

An Index at Its Best Week Since August, and a Basket That Lost $650 Billion in Two Days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15일 조간까지의 뉴욕·서울 시장, 금리와 연준 경로, AI 인프라 기업의 재무 구조, 미국 노동시장의 재편, 그리고 한국 증시의 수급을 창업가·경영진· 투자자·인사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정리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거래소·재무부·기업 공시·주요 외신)로 검증했고,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이번 호의 관찰은 하나입니다 — **같은 주에 지수는 올랐고 금리는 올랐고 회사들은 갈라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을 사고 있지 않고 '회사'를 골라 사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15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5. (일) Sunday
권호 Volume	VOL. 2026-11-15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12 ~ 11. 15 조간 (직전 3일)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2.51%
S&P500 주간 수익률
8월 초 이후 최고, 7,561.67 마감

+29bp
미 10년물 주간 상승
4.86% → 5.15%

−6,500억$
반도체 62개 종목
수요일 종가 이후 이틀

1,325억$
코어위브 수주잔고
2분기 1,040억에서 증가

한 문장으로: 금리가 오르는 주에 지수가 올랐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팔렸는지를 봐야 한다

11-13 마감 기준 — S&P500 주간 +2.51%, 10년물 5.15%, 반도체 62개 종목 이틀 −6,500억 달러

7,561.67
S&P500 11-13 종가(−0.40%). 주간 +2.51%, 8월 초 이후 최고의 주

25,136.27
나스닥 종합(−0.91%). 주간 +2.27%인데 금요일에만 0.9% 반납

5.15% / 5.47%
미 10년물·30년물. 주간 10년 +29bp, 2년 +37bp — 곡선 전 구간 상승

132.5조원상당
코어위브 수주 계약 잔고(1,325억 달러). 분기 매출 36.6억 달러(+168%)

1. 지수는 올랐고, 금리도 올랐다

11-13 뉴욕은 S&P500 7,561.67(−0.40%), 나스닥 25,136.27(−0.91%), 다우 52,347.55(+0.10%)로 마감했습니다. 하루는 기술주 중심으로 밀렸지만, 주간으로는 S&P500 +2.51%, 나스닥 +2.27%, 다우 +2.07%로 8월 초 이후 가장 좋은 한 주였습니다. 같은 주에 미 10년물은 4.86%에서 5.15%로 29bp, 2년물은 4.51%에서 4.88%로 37bp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주에 주식이 오른 것은 이번 사이클에서 흔한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반도체가 하락한 6번의 날 모두 국채금리는 내려 주식을 받쳐줬지만,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하락한 사흘 모두 금리가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이 더 이상 이 매매의 완충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시장이 아니라 회사를 고른다

같은 주에 엔비디아는 −13%(6주 연속 하락, 2012년 이후 최장), 네비우스 −10%, 브로드컴 −4%였고, AMD +19%, 마이크론 +13%, 코어위브 +15%, 인텔 +6%였습니다. 반도체지수(SOX)는 주간 약 +8%로 지수는 플러스였지만, 수요일 종가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상장 반도체 62개 종목에서 6,5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지수 수익률과 종목 생존율이 분리된 한 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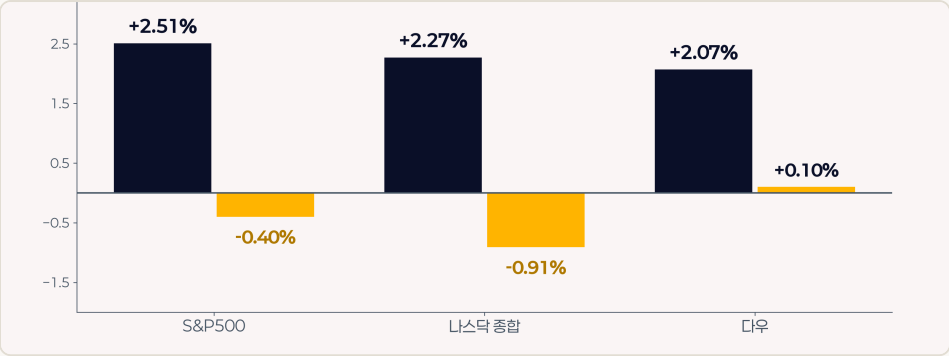
이번 호 결론

2027년 예산을 쓰는 회사가 이번 주에 배운 것은 하나다. 금리는 모든 회사에 같이 오르지만, 자금은 회사별로 다르게 떠난다

5대 영역	11-12 ~ 11-15 핵심 신호	방향
에듀테크·교육	AI 튜터 실증 3건 공개 — 표준화 검사에서는 효과 미검출, 참여율이 병목	도입 → 참여 설계
스타트업·창업	AI 인프라 기업의 조달 비용 급등(코어위브 회사채 16%대),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	성장 → 계약 담보
글로벌 기술	엔비디아 CEO 교체·임시 CEO 체제, 반도체 종목 분산 극대화	서사 → 지배구조
거시·금리	10년 5.15%, 12월 인상 확률 98%, 1월 추가 인상 68%	인하 기대 소멸
HR·채용	AI 관련 감원 월 1.6만 건 vs AI 창출 일자리 약 100만 — 순증이지만 직무는 이동	총량 → 직무 구조

I. 뉴욕: 8월 이후 최고의 주간, 그러나 금요일은 기술주의 날이 아니었다

주간 +2.51%는 월~수에 만들어졌고, 목~금에 반도체 62개 종목에서 6,50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자료: CNBC·야후파이낸스·로이터 11-13 마감 보도 종합. 주간 수익률은 11-06 종가 대비

지수	11-13 종가	하루	주간	해석
S&P500	7,561.67	−0.40%	+2.51%	11개 업종 중 기술주가 최악,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나스닥 종합	25,136.27	−0.91%	+2.27%	200일선에 걸쳐 마감. 11-05 저점에서 회복 후 정체
다우	52,347.55	+0.10%	+2.07%	산업재·금융이 방어. 지수 내 최고 성과
VIX	19.3	+3.2%	—	공포가 아니라 경계. 11-05 28.18에서 내려온 수준

왜 금요일에만 팔렸나

주 초반의 상승은 "칩 악재는 한 회사의 문제"라는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월요일 S&P500은 +2.4%로 4월 이후 최대 상승이었고 VIX는 28.18에서 19.92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에는 같은 해석이 뒤집혔습니다.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살짝 낮았는데도 10년물이 5.15%를 지켰고, 연준 인사들이 연달아 인상 편향을 확인했고, 엔비디아 리더십 공백이 공급망 전반의 재고·발주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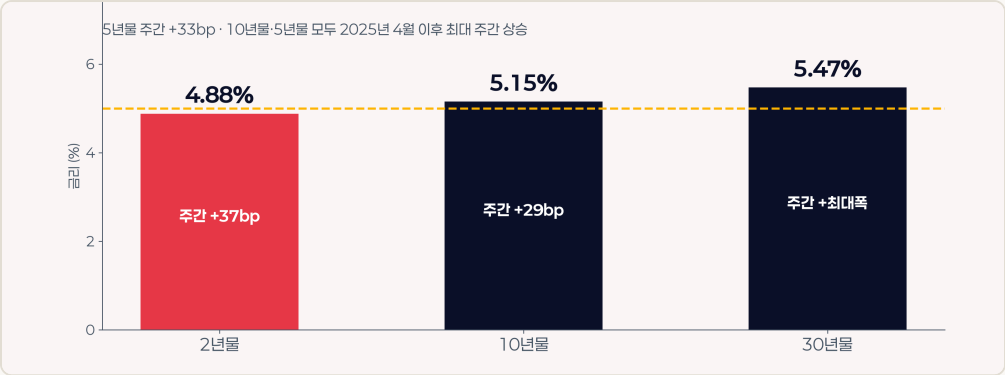
수요일 이후의 숫자

수요일 종가에서 금요일까지 미국 상장 반도체 62개 종목 중 상승한 것은 세 개였고, 시가총액 6,500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지수는 5월~10월 지지선이던 11,100~11,200 구간에 다시 닿지 못하고 200일선 아래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초반 사흘이 만들었고, 마지막 이틀이 그중 상당 부분을 되돌렸습니다.**

읽는 법 지수 종가는 11-13 확정치이며, 로이터 잠정치는 S&P500 7,560.87·나스닥 25,135.96으로 소수점 이하가 다를 수 있습니다.

II. 금리: 곡선 전 구간이 올랐고, 12월 인상은 사실상 확정됐다

2년 +37bp·10년 +29bp·30년 5.47% — 연준은 방향을 정했고, 시장은 인상 횟수를 다시 셌다



자료: 미 재무부 par yield curve(11-13), CME FedWatch·Kalshi·Polymarket 종합

연준은 방향을, 시장은 속도를 본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4%로 예상을 웃돌았고 근원물가는 석 달 연속 +0.3%였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3%(예상 +0.4%)로 한 단계 낮았지만 전년비 6.5%로 9월 6.3%에서 오히려 올라섰습니다. 12월 25bp 인상 확률은 선물시장에서 98%까지 올라섰고, 50bp 확률은 0%에서 11%대로 올라섰습니다. 1월 추가 인상 확률도 68%가 반영됐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더 자주, 더 작게"가 관리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 **방향은 합의됐고, 논쟁은 속도와 횟수로 옮겨갔습니다.**

워시 의장의 첫 번째 개혁: 회의 횟수

WSJ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연간 금리 결정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이 개혁이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회의가 줄면 시장의 '데이터 한 건당 한 표' 구조가 약해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은 월 단위 변동성에서 분기 단위 변동성으로 옮겨갑니다.

금리 함의 **10년물 5.15%는 기업 예산의 할인율이고, 2년물 4.88%는 운전자금의 이자율이다. 두 금리가 같은 주에 30bp 이상 오르면 어떤 성장 계획도 작년의 가정으로는 서지 않는다**

III. AI 인프라: 수주잔고 1,325억 달러와 회사채 16%가 같은 회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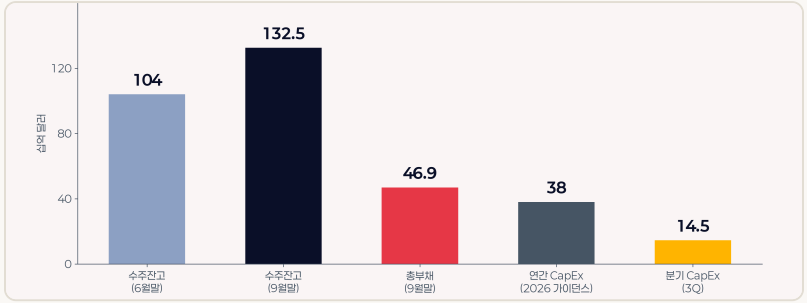
코어위브 3분기 — 매출 +168%, 순손실 7.09억 달러, 이자비용 8.46억 달러. 계약은 담보가 되고 금리는 비용이 된다

36.6억$
코어위브 3분기 매출(+168% YoY). 조정 영업이익률 16%, 조정 EBITDA 22.6억$

−7.09억$
3분기 순손실. 순이자비용 8.46억$가 영업이익 2.07억$를 세 배 이상 초과

1,325억$
9월말 수주잔고(6월말 1,040억$). 향후 3개월 고객 선수금·예치금 90억$ 예상

469억$
9월말 총부채. 2027년까지 모회사 무담보 회사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



자료: 코어위브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2026-11-10) 및 컨퍼런스콜, 로이터·CNBC 보도

수주잔고가 담보가 되는 구조

코어위브의 3분기 자본지출은 145억 달러로 2분기 94억 달러에서 급증했고, 연간 가이던스는 370억~390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이 회사의 설명은 정연합니다 — "고객 계약이 먼저 있고 투자가 따라온다." 수주잔고 1,325억 달러는 2027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미리 고정하고, 고객 선수금 90억 달러가 3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4.6GW의 계약 전력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1.85GW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금리에는 노출되고 계약에는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현재 금리에서 모회사 무담보 회사채를 찍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부 채권 금리는 16%를 넘었습니다.

창업자가 읽을 세 문장

첫째, 수주잔고는 매출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회계적으로 인식되려면 납기와 가동이 충족돼야 합니다. 둘째,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는 구조에서는 성장이 곧 유동성 압박입니다. 셋째, 조달을 계약에 묶는 방식(선수금·자산담보·공급사 보증)은 금리가 높을 때 유효하지만, 고객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계약 하나의 재협상이 회사 전체를 흔듭니다.

구조 요약 AI 인프라의 2026년 질문은 "수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수요의 대금을 누가 언제 지급하느냐"다

IV. 노동: AI는 일자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직무의 순서를 바꿨다

미국에서 AI 관련 감원은 월 1.6만 건, AI가 만든 일자리는 약 100만 개 — 총량은 늘고 반복 과업이 먼저 줄었다

구분	수치	의미	출처
AI 관련 감원 발표	월 평균 약 1.6만 건	미국 전체 감원(월 약 170만 건)의 1% 미만	챌린저·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AI가 만든 일자리	약 100만 개(추정)	2023년 중반 이후 AI로 인한 감원 약 20만 건을 크게 초과	The Economist 추계
데이터센터 공사	연 환산 750억 달러 이상(+60%)	전기·냉각·그리드·설치 인력 수요를 직접 창출	미 인구조사국
5개 인프라 업종 고용	추세 대비 +32만 명	전기공사·장비제조 등 데이터센터 핵심 업종	The Economist 분석
데이터센터 일자리	2023~2025년 약 50만 개	구인 공고는 줄었는데 데이터센터 공고는 2배	링크드인
AI 직무 비중	전문직의 약 1%	컴퓨터·생명과학 직군은 4~5%	버닝글래스연구소
직무별 증감(2023~2025)	변호사 보조 +11%, 시장조사 +6%, 고객서비스 −10%, 비서·행정 −15%	자동화가 쉬운 직무부터 감소	BLS·업계 집계
향후 전망	사무·행정지원 2035년까지 −75.2만	BLS 공식 전망 — 반복 과업 중심	미 노동통계국

한국 노동시장의 대응 좌표

한국의 10월 고용은 총량 +13.9만 명, 청년(15~29세) −19.6만 명으로 48개월 연속 감소였습니다. 미국의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 총량은 늘고, 반복 과업과 신입 진입 경로가 먼저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보조와 시장조사 분석가가 늘어난 이유는 AI가 그 직무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검토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재배치가 일어날 조건은 하나입니다. 검증과 기록을 직무 안에 넣는가.

인사 담당자의 2027년 예산

채용 공고를 늘리는 대신 ①직무별 AI 사용 로그를 남기는 교육 ②검증 가능한 산출물 기준 ③관리자 감독 부담을 줄이는 검토 도구에 예산이 이동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루는 실증 연구는 이 순서가 바뀌면 조직이 오히려 감독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용의 구조 AI가 만든 일자리의 절반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 공사가 정치적으로 멈추면 일자리 통계와 전력 원가가 동시에 뒤집힌다

V. 서울: 장중 5,504를 찍고 5,290으로 — 외국인이 오전 11시 40분에 방향을 바꿨다

코스피 −0.98%, 코스닥 +0.45%, 원·달러 1,336.7원. 외국인 5,475억 순매도가 지수를 결정했다

구분	11-13 종가	전일 대비	수급·특이점
코스피	5,290.53	−0.98% (−52.20P)	시가 5,452.41(+2.05%) → 09:13 5,504.44 → 저점 5,259.09
코스닥	699.66	+0.45% (+3.13P)	기관 +1,262억 순매수, 외국인 −755억·개인 −563억
원·달러	1,336.7원	+6.0원	장중 1,340원대 시도 후 반락. 60거래일 범위 하단권
외국인(유가)	−5,475억	4거래일 만에 순매도	장 초 2,200억~3,000억 순매수 → 11:40 전후 매도 전환
기관(유가)	+23억	—	개인 +171억, 기타법인 +5,312억이 매도 물량 흡수

하루 4.6%의 왕복

코스피는 5,500선을 3.03%까지 밀어올렸다가 245.35포인트를 되돌렸습니다. 상승 451종목, 하락 420종목으로 종목 수는 비슷했지만 지수를 만든 대형 반도체가 되돌려졌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이 플러스였고, 유가증권에서 기타법인이 5,312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점은 수급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 **개인의 추격이 아니라 기관·법인의 자리 이동**이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의 세 변수

①11-17 엔비디아 실적(메모리 수요의 방향) ②11-18~19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③외국인 순매수 재개 여부. 11-10~12 사흘간 외국인은 1조 5,290억 원을 순매수했고 하루 만에 5,475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12월 초까지 지수보다 업종 로테이션이 수익률을 가릅니다.

서울 요약 **5,500을 찍고 5,290으로 돌아온 하루는, 지수가 아니라 투자자의 손이 바뀐 하루였다**

VI. 정책 캘린더: 다음 6개 시점이 2027년의 원가를 정한다

엔비디아 실적, 선전 정상회담, 앤트로픽 상장, 12월 연준, 11월 물가, 데이터센터 전력 규정

시점	이벤트	확인할 것	기업에 미치는 경로
11-17(화)	엔비디아 회계 3분기 실적	매출 컨센서스 1,088억~1,094억 달러, 총마진 74%(2분기 75%), 4분기 가이던스(컨센서스 약 1,247억 달러)	메모리·장비·전력 협력사 발주. 마진 하락이 확인되면 밸류체인 가격 재협상
11-18~19	APEC 정상회의(선전) 계기 미·중 정상회담	무역합의 이행 점검, 희토류·농산물, 반도체 수출통제는 의제에서 제외된다는 미 측 입장	관세 휴전(2027-01-10까지 연장) 유지 여부가 부품 원가에 직결
11월 중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티커 ANT) 로드쇼	공모 밸류에이션과 신용등급(투자등급 미확보 가능성)	AI 매출의 첫 공개 가격표. AI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기준선이 이동
12-09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5bp 인상(사실상 확정), 50bp 확률 11%, 점도표	차입 만기·금리 상한 시나리오 3안 필요
12-10	미 11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세 달 연속 +0.3%가 깨지는지	1월 추가 인상(현재 68%) 확률 재조정
11-14 이후	미국 지방정부의 데이터센터 전력비용 부담 규정	오하이오~텍사스에서 당선된 데이터센터 규제 성향 후보의 실제 입법	전력 계약 조건·허가 일정. 국내 장비·전력기기 수출 물량

정치가 원가가 되는 두 지점

블룸버그는 미드텀 이후 데이터센터 전력비용을 기술기업에 전가하는 규정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고객이 우리 성장 비용을 내지 않게 하겠다"며 올해 1,170억 달러의 컴퓨팅 용량을 자체 조달 방식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이 정치 의제가 되면 데이터센터의 입지 비용은 **금리와 함께 원가의 두 축**이 됩니다.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①메모리 가격(엔비디아 가이던스) ②전력기기·변압기·냉각 수출(미 지방정부 허가) ③관세 휴전(부품 원가) ④환율(1,336.7원, 달러지수 19개월 최고). 네 축 모두 이번 주에 새 정보가 나옵니다.

원가의 정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다. 금리, 전기요금, 그리고 관세다. 세 가지 모두 이번 주에 새 정보가 나온다**

면책 본 보고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산업 분석으로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컨센서스 수치는 집계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VII. 전략 매트릭스: 2027년 예산을 다시 쓰는 여섯 개의 축

조달 비용·계약의 질·고객 집중·인력·자본·환율 — 이번 주 신호를 예산 항목으로 번역했다

축	11-13 신호	창업자의 판단	2027년 예산 반영
조달 비용	10년 5.15%, 2년 +37bp, 12월 인상 98%	단기·변동금리 만기를 고정·장기로 교체	이자비용 +1.5~2.0%p 스트레스 테스트
계약의 질	코어위브 수주잔고 1,325억$, 회사채 16%	수주잔고를 현금흐름표와 분리해 관리	계약별 납기·검수·지급 조건 표준화
고객 집중	AI 인프라 상위 고객 의존 심화	상위 3개 고객 비중 50% 초과 시 재협상 리스크 관리	집중도 지표를 이사회 보고 항목으로
인력	AI 감원 월 1.6만 vs 창출 약 100만	신입 채용을 검증·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	교육·검증 예산 신설, 채용 예산 일부 전환
자본	AI 스타트업 조달 조건 악화, IPO 창구는 열림	런웨이 24개월을 기본값으로, 브리지 조항 사전 확보	12개월 예산 + 12개월 비상계획 병행
환율·원가	달러지수 103.4(2025-04 이후 최고), 유가 89$	달러 결제 원가·수입 부품 노출도 축소	환헤지 비율 50% 이상, 유가 민감도 시나리오

전략 원칙 **금리와 원가가 동시에 오르는 해에는 매출 성장률보다 계약의 지급 조건이 회사의 생사를 가른다. 지금 시장이 값을 매기는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계약의 질이다**

이번 주에 바로 할 세 가지

①차입 만기표를 금리 5.30% 가정으로 다시 그린다 ②상위 3개 고객의 계약 지급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다 ③신입 채용 계획을 검증·교육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대체할지 숫자로 정한다.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AI 수요 전망을 근거로 설비 투자를 앞당기는 결정. 수요는 남아 있어도 조달 비용이 먼저 오르면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이 바뀝니다. 순서는 계약 → 자금 → 설비입니다.

VIII. 세 가지 시나리오: 11월 셋째 주에 예산의 가정이 바뀐다

엔비디아 실적·금리 경로·신용 경계 — 각 시나리오에서 먼저 움직일 지표와 결정 규칙

시나리오 A — 11-17 엔비디아가 마진과 가이던스를 동시에 낮출 때

총마진이 74% 가이던스를 밑돌고 4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약 1,247억 달러)를 하회하면, 메모리·장비·전력 밸류체인의 2027년 발주 계획이 먼저 조정됩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지수 하락과 원화 약세가 함께 나타나고, 수출 중소기업의 달러 결제 원가는 오히려 개선됩니다. 이 경우 2027년 예산은 신규 설비 동결, 기존 계약의 단가 재협상, 재고 회전 단축이 우선입니다.

시나리오 B — 실적이 견조하고 금리만 높은 상태가 이어질 때

매출이 컨센서스를 웃돌고 가이던스가 유지되면 AI 설비투자 사이클은 2027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국면의 승자는 매출이 늘면서 조달 비용을 계약으로 전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선수금, 장기 고정가, 지수연동 조항이 그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C — 신용 경계가 먼저 흔들릴 때

네오클라우드·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등급 하향이나 계약 재협상이 나오면, 충격은 주식이 아니라 조달 시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앤트로픽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보도가 그 신호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도 AI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기간이 늘고, 벤더 보증에 의존한 계약이 재검토됩니다.

확인 지표	현재 값	경계선	의사결정 규칙
엔비디아 총마진	가이던스 74%	72% 이탈	메모리 발주 6개월 단위로 단축
코어위브 회사채 금리	일부 16%대	18% 접근	고객 선수금 비중 상향 협상
미 10년물	5.15%	5.30% 돌파	차입 계획 전면 재작성
원·달러	1,336.7원	1,350원 접근	수입 원가 헤지 비율 상향
외국인 순매수	하루 −5,475억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업종 로테이션 대응, 지수 베팅 축소

English Summary / 국문 요약의 영문판

An index at its best week since August, in which the Ai trade split into winners and losers

Executive Summary (English)

The S&P 500 closed at 7,561.67 on Friday 13 November, down 0.40% on the day but up 2.51% for the week - its best week since early August. The Nasdaq Composite fell 0.91% to 25,136.27 and the Dow rose 0.10% to 52,347.55. What made the week unusual is that equities rose while the cost of money rose with them: the 10-year Treasury yield climbed 29 basis points to 5.15%, the 2-year rose 37 basis points to 4.88% and the 30-year reached 5.47%. Between 22 October and 6 November, yields fell on all six days when semiconductors fell, cushioning the drawdown. Last week they rose on all three such days. Bonds are no longer the shock absorber for the AI trade.

Dispersion, not direction

The index return and the survival rate of individual companies separated. Nvidia fell about 13% for a sixth consecutive weekly decline, the longest streak since 2012, while AMD rose 19%, Micron 13%, Intel 6% and CoreWeave 15%. Th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finished the week up roughly 8%, yet a basket of 62 US-listed chip stocks lost more than $650 billion between Wednesday's close and Friday. October consumer prices rose 0.4% month on month and producer prices 6.5% year on year, leaving markets pricing a 98% probability of a December hike, an 11% chance of 50 basis points and a 68% chance of another increase in January.

Korea and the contract economy

The KOSPI opened 2.05% higher, touched 5,504.44 at 09:13, fell to 5,259.09 and closed at 5,290.53, down 0.98%, as foreign investors turned net sellers of KRW 547.5 billion around 11:40. The KOSDAQ rose 0.45% and the won closed at 1,336.7 per dollar. CoreWeave reported third-quarter revenue of $3.66 billion (+168%) with a $132.5 billion revenue backlog and $46.9 billion of debt; some of its bonds yield above 16%. The lesson for founders is that backlog is a contract, not revenue, and that interest expense now exceeds operating profit at the companies building the AI economy.

+2.51%
S&P 500 weekly return, the best since early August

−13%
Nvidia weekly decline, sixth consecutive and longest since 2012

$650bn
Market value lost by 62 chip stocks between Wednesday and Friday

98%
Market-implied probability of a December rate increase

One line **When rates rise and prices rise together, the market stops buying an index and starts choosing companies**

맺음: 세 개의 숫자만 남긴다

10년물 5.15%, 반도체 62개 종목 −6,500억 달러, 코어위브 수주잔고 1,325억 달러

이번 호가 확인한 것

11-12부터 11-15까지의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지수가 올랐다면, 그 상승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회사들의 것이었다.** 뉴욕에서는 지수가 주간으로 2.51% 올랐지만 반도체 62개 종목이 이틀에 6,500억 달러를 잃었고, 서울에서는 외국인이 오전 11시 40분에 방향을 바꾸자 지수가 4.6%를 왕복했습니다. 코어위브는 수주잔고 1,325억 달러와 회사채 16%를 같은 회사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엔비디아의 4분기 주문잔고와 앤트로픽의 공모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거래소 잠정치(5,505억 원)와 최종치(5,475억 원)가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 휴장이라 모든 지수 수치는 11-13 종가이며, 일요일 선물 재개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관련 일자리 추정(약 100만 개)은 언론사의 자체 추계로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지표	최근 값	다음 확인 시점	판단 기준
S&P500	7,561.67	11-17 이후	5일선 유지 여부 — 주간 상승분의 절반 보존
미 10년물	5.15%	12-09 점도표	5.30% 돌파 여부
엔비디아	주간 −13%	11-17 실적	총마진 74%와 4분기 가이던스
코스피	5,290.53	11-17 외국인 수급	5,200선 유지 여부
코어위브 채권	일부 16%대	12월 자산담보부 발행	금리 18% 접근 여부
청년 고용률	42.9%	12-11 고용동향	두 달 연속 반등 여부

발행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 문의 contact@conderi.com | 본 자료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